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수세인트마리
파견대학	Algoma대학	기간	18.1.21~18.2.10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토론토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수세인트마리에 있는 Algoma대학이에요. 구글맵 상으로 봤을 때는 학교 엄청 작았는데 생활해보니 생각보다 엄청 작진 않아요! 시설도 좋고 분위기도 엄청 자유롭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교환학생으로 많이 와 있는 게 보였어요.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첫날에 시험을 보는데 A/I로 나뉘어요. 근데 수업내용은 거의 다 같아서 분반해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수업은 문법, 스피킹, 리스닝 등 배우는데 주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학교의 residential school 이라던지 시리아 전쟁 등 이런거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친절하시고 반응도 잘해주셔요ㅜㅜ 우리가 하는 말 잘 귀기울여주시고 하나하나 다 챙겨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과제는 마지막 주에 몰아서 내주셔서 조금 힘들었어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서 제출하는 건데 메일로 제출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서 내도 돼요!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토론준비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해서 조금 바빴어요.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스키복 가져오라해서 가져왔는데 웬만하면 다 집에 있으니까 짐 무거운데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스키, 스케이트, 개썰매 등등 눈은 질리도록 봤는데, 발 시려우니까 무조건 부츠 신고 다녀야 해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20도 넘게까지도 내려가긴 하는데 한국처럼 바람이 엄청 불고 그러진 않아서 못살 정도로 춥진 않아요.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엄청 안전해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0)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 집도 엄청 크고 드라이기, 샴푸, 린스, 타올 전부 다 있었어요. 이걸 홈스테이 배정결과 나오면 꼭 이메일로 연락 주고 받으세요!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0)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식사는 거의 집에서 했어요. 홈맘께서 요리 솜씨가 좋으셔서 친구들끼리 레스토랑에서 한 번 먹고 학교에서 밥주거나 밥 먹으러 간 거 빼고는 거의 집에서 먹었어요.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버스패스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는 걸 학교에서 주는데 저는 맨날 픽업 하러 오시고 데려다 주셔서 버스타면 50분 걸리는 거리를 차타고 15~20분만에 다녔어요. 버스는 30분마다 한 대씩 있어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200백만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항공료	157만원	사전납부
여행자보험	3만원	사전납부
eTA	7달러	사전납부
환전	320달러	
나머진 카드 사용		
합계	2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한국에서 캐나다 돈으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미국 돈으로 환전해서 현지에서 캐나다 돈으로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학교에선 이런 거 안 알려줘서 캐나다 와서 다른 학교에서 온 애가 알려줬답니다(또록..)

*캐리어는 큰 거 한 개 보다는 작더라도 두 개 추천..

겨울이라 옷 부피가 큰 것도 있었지만 현지에서 선물사고 이것저것 사면 캐리어 한 개 당 23kg이 넘으면 100달러를 내야하기 때문에 두 개에 나눠 담는 게 훨씬 나아요. 28인치 가져갔었는데 23kg채우고도 짐이 다 안 들어가서 결국 홈맘,대디가 캐리어 한 개 주셔서 끌고 왔어요.

*홈스테이 가족들 줄 선물들 들고 가면 좋아요!

*환전은 5,10,20달러 단위로 작게 하고 나머지는 카드 쓰는 게 편해요.

*유심칩은 사면 편하고 안사면 조금 불편한 정도? 집이랑 학교에선 와이파이 다 돼요.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3주면 얼마나 길까 얼마나 짧을까 가늠이 안됐었는데, 갔다와서 느낀 건 확실히 짧다였어요. 그리고 진짜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차타고 다니면 다들 서로 먼저가게 멈춰주고,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눈 마주치면 Hi해주고 말 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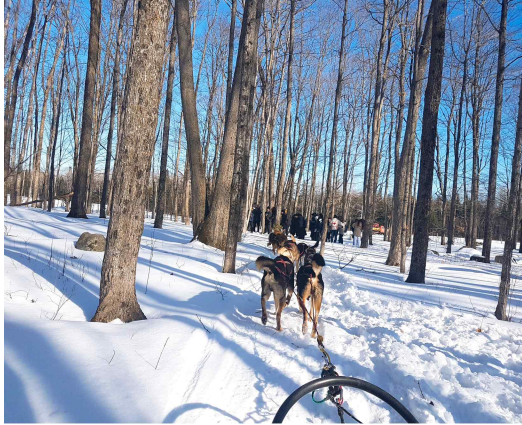
주변에 상권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어요. 대신 걸어서는 못다니고 버스나 차를 타고 가야하는게 불편...

일단 station mall은 영화관, 마트, 옷가게들이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이 갔던 곳! 세일 할 때 가면 싼데 세일을 안하면 좀 비싼 곳이라요. 그리고 cambrian mall은 옷가게, 화장품 가게, 은행, 미용실, drug store이 있는데 winner라는 옷도 팔고 잡동사니 파는 곳은 진짜 잘 둘러보면 건질게 많아요. cambrian mall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independent라는 식료품점도 있어요. 그리고 차타고 조금 더 가면 metro, walmart가 있는데 walmart는 station mall에도 있지만 그건 좀 작은 거고 walmart따로 있는 게 되게 커요. 주로 walmart가 제일 싸요.

그리고 하키게임 별 기대 안했는데, 한 번 보고나서 빠져서 한국 와서도 하키게임 찾아 봐요ㅠㅠ 진짜 재밌어요.

한국이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할 일들을 하고 왔어요. 한국 돌아오니깐 꿈만 같았던 일들을 겪고 온 것 같아서 무척 그리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모아서 교환학생으로도 가고 싶고, 다시 가족들 만나러 가고 싶어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옆집 언니와 함께 한국음식 만들기	알파카 밥주기
	
하키 게임 보러가기	개썰매 타기
	
학교 안에 있는 팀홀튼 카페	Bonsoo 페스티벌